

# Signature VER2.0

시그니처

수능영어  
기출분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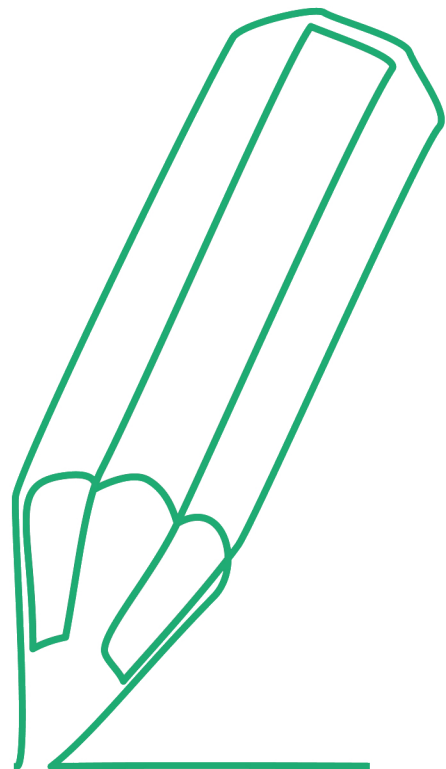
시험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전략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영어영역(시그니처 김현철)

가장 최고의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분석서!

평가원 기출분석 핵심은 결국 시험에서 앞으로 반복될 평가원의 경향과,  
정확한 문제풀이 능력을 배양하는 것! 6평의 코드를 100% 체득할 수 있는 고퀄리티 분석서!



##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해설지 활용방안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구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튕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secondary, unconditional 등 학생들이 모를만한 어휘가 등장하여 혼돈을 준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정확히 하고 나서라도 문제가 쉽게 풀리면 다행인데, 21번 의미추론 문항, 29번 어법 문제, 그리고 31~34 빈칸추론 전부와, 순서삽입 문항 모두가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등급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당연히 영어는 '외국어' 이기 때문에,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해석의 기본은 단어이고, 핵심은 구문입니다. 여러 번 단어장과 구문 책을 돌리지 않았다면 영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자체를 시작하지 마세요! 단어과 구문을 여러 번 돌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1달반동안 영어를 하되, 단어와 구문에 때려 박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독해 공부를 하고 기출 분석을 할 때 시간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구문과 단어는 양입니다. 줄일 수 없어요. 이 양을 피하면, 줄여지는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짐으로 돌아옵니다. 평가원 한 지문을 읽으실 때 단어를 모르는 것이 대략 5개~6개를 넘어서서는 안되며 (각주 단어, 너무 어려운 단어등은 제외하고서라도), 구문에 있어서도 해석을 할 때 구조를 못보시는 문장이 많이 계시면 안됩니다. 이 전제가 서야지만 영어 공부의 질이며, 효율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척척석사가 오더라도 줄여드릴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제 논리와 독해를 논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핵심적인 논리 전개 방식은 결국 '재진술'이며 같은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같은 표현으로 받아들이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해 기반 아래에서 기출분석에서 배워야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놓은 책이 바로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를 구매하셔서 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될것입니다.

## 이 해설지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해설 이전에 첫 페이지에는 꼭 그 지문에서 알고 계셔야만 할 '단어 와 구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뒤에 독해 문제를 풀어주세요. 독해에 대한 해설은 글의 구조와 논리에 집중하기 위하여 구문/단어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2.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해설서에 작성해놓은 제목을 시그니처 교재속에서 찾아서 그 예시 기출 문제와 이번 6평 문제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서 정리해보세요.

과거 EBS처럼 시험에 나올 지문도 아닌데도, 기출을 분석하는 까닭은 그 출제 스타일과 풀이 방법에 있어서 아주 유사한 점을 띠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평가원의 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결국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 해당 문제의 핵심적인 코드를 설명해놓은 시그니처 책에서의 단원 제목을 적어두었습니다. 책을 2회독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책에서의 단원 제목과 연관지어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해설지는 시그니처 책과의 연관성을 극대화해, 독자 여러분들의 학습에 아주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심하게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 6평의 상흔이 가라앉고, 이제 냉철하게 시험을 분석해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 평가원 시험의 출제경향이 수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분석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시그니처 해설지 목차

### 1.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

#### 1. Part A (Comprehension) 이해영역

- (1) 21번, 의미추론의 핵심은 유기성에 기반한 이해이다 & 글 읽는 방법에 대하여 – reactive work? 나도 모른다.
- (2) 23번, 글 읽는 방법에 대하여 – absorption? 나도 모른다.
- (3) 31번, 빈칸추론 풀이법 (1) 재진술 & Moreover 접속사에 대하여
- (4) 32번, 빈칸추론 풀이법 (1) 재진술 – 같은 말을 대응 시키면 문장에서 정보가 보인다 / 뒤에 예시까지 읽지말자.
- (5) 33번, 빈칸추론 유의사항(1) A/B 대조논리에 대한 숙지 – 글이 나뉘면 나누어서 읽는다.
- (6) 34번, 빈칸추론 유의사항 (5) 인과는 정해져있다 – B style

#### 2. Part B (Technique) 기술영역

- (1) 36번,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3) 과정-순서의 흐름 & 1번이 정답이 아니라는건 도대체 누구 뇌피셜이니?
- (2) 37번, 글의순서 (4) 같은 말은 붙어 있어야만 한다 (문장의 위상에 대하여)
- (3) 38번,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1) 남음 – 갑작스러운 they cannot observe!
- (4) 39번,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1) 남음 – 지문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만 On the other hand를 피할 수 있다.

#### 3. Part C (Grammar) 어법영역

- (1) 29번 어법, 병렬구조의 핵심은 어디에 걸리는지 알기 위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다.

**21번 의미추론**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block off**

## 1. ~을 차단하다

This means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이것은 전화기와 이메일을 끈 채, 여러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창조적인 작업을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002&amp;003

**By definition  
goes against  
the grain of**

## 002. By definition - 분명히 / 003. goes against the grain of ~에 맞지 않다.

By definition,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당연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하는 압박에 맞지 않는다.

004  
**abandon**

## 포기하다

But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than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 .

당연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하는 압박에 맞지 않는다.

005  
**sacrifice**

## 희생하다

Otherwise, you'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문성이라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희생하고 있다.

밑줄 친 an empty inbox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is to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This means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Making this switch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Yet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It wasn't easy, and it still isn't, particularly when I get phone messages beginning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By definition,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It take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even for an hour. It feels uncomfortable, and sometimes people get upset. But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than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 Otherwise, you'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 ① following an innovative course of action
- ②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 ③ completing challenging work without mistakes
- ④ removing social ties to maintain a mental balance
- ⑤ securing enough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ing

해석

여러분이 일하는 습관에서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변화는 창조적인 일을 먼저 하고 대응적인 일은 그 다음에 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화기와 이메일을 끈 채, 여러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창조적인 작업을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작가였다. 이렇게 전환하자 나는 생산적인 작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내가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 혹은 책의 한 챕터를 쓰려고 앉을 때마다 일련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답장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것은 쉽지 않았고, 특히 "2시간 전에" 이메일을 보냈어요...!"라고 시작하는 전화 메시지를 받을 때는 아직도 쉽지 않다. 당연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하는 압박에 맞지 않는다. 단 한 시간 동안이라도 세상에 대한 스위치를 끄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불편한 느낌이 들고, 때로 사람들이 기분 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빈 수신함을 위해 (수신함을 늘 비어 있게 하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사소한 것에 대해 몇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문성이라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희생하고 있다.

**21번 의미추론** 의미추론의 핵심은 유기성에 기반한 이해이다 & 글 읽는 방법에 대하여 -reactive work? 나도 모른다.

### Solution

의미추론 출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말 딱 도배인데요. 이는 밑줄 쳐져있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줄쳐져 있는 empty box가 어떤 말들과 같은 말인지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reactive work라는 말이 처음에 튀어나오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글에서 낯선 말이 나오면, 이는 분명히 필자가 뒤에 구체적인 진술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꼼꼼하고 체계적이게 아래의 진술들을 연결하며 독해하세요!

### Comprehension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is to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일하는 습관에서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개의 변화는 창의적인 일을 먼저하고, 반응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는거래. 엉? 반응적인 일이 뭘까? reactive work? 물론 상상해볼 수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되는 말인건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너무 신경많이 쓰지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 왜냐하면 분명 여기서 나와있는 reactive work가 뭘지에 대해서 설명해줄거니 말이야! reactive work는 어쨌건 '나중에'하는 거래.

This means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이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창의적인 작업을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차단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화기와 이메일을 끈채로! 여기서 그럼 creative work는 앞문장에서 이야기했던 'creative work first'에서 그것이고, 그럼 나중에하는게 뭐야? 그럼! 휴대폰과, 이메일을 꺼둔다라고 했고, 많은 시간을 차단한다라고 했으니 이걸 '나중에' 하는거 아니겠어? 그럼 reactive work라는 것은 e-mail, phone 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아래 문장을 계속 읽어보자. 더 구체화 시켜줄거야.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Making this switch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Yet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네.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작가였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를 생산적인 작가로 바꾸었다. 즉 이메일과 휴대폰을 꺼두는 것이 생산성을 높였다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기사나, 블로그를 쓰려고 앉을 때마다, 일련의 사람들이 내가 답장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대. 즉 블로그나 기사 쓰는 일을 creative work라고 본다면, 일련의 사람들이 답장 주길 바라는 것 (그게 이메일과 휴대폰이겠지!) 이 reactive work라고 할 수 있겠네! 이쯤 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 creative work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네.

It wasn't easy, and it still isn't, particularly when I get phone messages beginning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By definition,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내가 2시간전에 너한테 이메일 보냈다고 오는 휴대폰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그렇게 하는게 쉽지 않다. 당연히, 이런 접근법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가하는 압박에 맞지 않는다. 결국 앞에서 했던대로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하는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Comprehension It take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even for an hour. It feels uncomfortable, and sometimes people get upset. But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than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 Otherwise, you'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세상에 대해서 스위치를 끄려면 의지가 필요하고, 심지어 한시간 만이라도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대. 불편하고, 사람들이 가끔 화날수도 있대. 즉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것이지. 하지만, 몇몇 사람들을 작은것에 대해 실망시키는게, 너의 꿈을 빈 수신함을 위해 포기하는 것 보다 낫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게 뭘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응대해주는, 즉 reactive work를 포기하는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리고 너의 꿈을 포기하는게 뭘까? 바로 creatvie work를 포기하는걸 거야. 그렇기 때문에, empty inbox는 creative work를 하지 않고, reactive work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즉 글에서 처음에 정했던 프레임대로 꼼꼼하게 대응시키며 독해를 하면 되는거야!

②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정답은 2번!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바로 reactive work부터 하고, creative work를 제쳐두는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정답은 2번!

의미추론에 대해서 늘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형의 출제 기반은 '유기성'에 기반을 두고 출제된다는 점을 까먹지말자!  
모든 유형이 다 이런 느낌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그니처 파트에서 의미추론 부분을 꼭 한번 다 풀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자!

**23번 주제**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absorption**

## 몰입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between play and absorption in a story, as if both are forms of the same activity.

아이들은 (역할) 놀이와 이야기로의 몰입이 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쉽게 그 둘 사이를 이동한다.

002  
**adolescence**

## 청소년기

It might be thought that,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 but this is not so.

사람들이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아동기의 놀이를 그만둔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003  
**regress**

## 퇴행시키다, 퇴보시키다

When we experience emotions in such worlds, this is not a sign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or regressed.

그런 세계에서 감정들을 경험하면, 이는 우리가 일관되지 않다거나 퇴행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004  
**derive from**

## 기인하다

It derives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s of our selves in new ways, in new worlds, in ways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은유적 변신을 시도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005  
**metaphorical**

## 은유적인

It derives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s of our selves in new ways, in new worlds, in ways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은유적 변신을 시도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Sentence Structure**

1. The taking of roles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 is not very different than the taking of roles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as one watches a movie.

taking~ 두 대상이 비교되고 있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 부분은 이야기 구조에서의 해적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것 (A)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등장인물과 동일시 하며 역할을 맡는 것 (B)와 다르지 않다 (=is not very different)라고 표현하고 있다. A는 play에 해당하고, B는 absorp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Sentence Structure

2. It might be thought that,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 but this is not so. Instead, the bases and interests of this activity change and develop to playing and watching sports, to the fiction of plays, novels, and movies, and nowadays to video games.

It might be thought that이라는 구문 다음에 that절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as they grow~ 부분이 나오면서 삽입되어있어서 people give up ~ (that절 부분)이 분리되어져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as는 whe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as 접속사 의미가 무한한것같지만 충분히 정리하고 확실히 암기할 수 있는 수준이니 꼭 정리해두도록 하자. change and develop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병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보도록 하자.

3. When we experience emotions in such worlds, this is not a sign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or regressed. It derives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s of our selves in new ways, in new worlds, in ways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동격절 that이 a sign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 derive from이라는 말의 덩어리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구문해석

1. 이야기식 구조의 해적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역할을 맡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사람들이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아동기의 놀이를 그만둔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대신에, 이런 활동의 기반과 흥미가 바뀌어 스포츠 활동과 관람으로, 연극, 소설, 영화의 허구로, 그리고 최근에는 비디오 게임으로 발전한다.
3. 그런 세계에서 감정들을 경험하면, 이는 우리가 일관되지 않다거나 퇴행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은유적 변신을 시도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23번 주제추론** 시그니처 해설지**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between play and absorption in a story, as if both are forms of the same activity. The taking of roles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 is not very different than the taking of roles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as one watches a movie. It might be thought that,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 but this is not so. Instead, the bases and interests of this activity change and develop to playing and watching sports, to the fiction of plays, novels, and movies, and nowadays to video games. In fiction, one can enter possible worlds. When we experience emotions in such worlds, this is not a sign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or regressed. It derives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s of our selves in new ways, in new worlds, in ways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 pirate: 해적 \*\* incoherent: 일관되지 않은

- ① relationship between play types and emotional stability
- ② reasons for identifying with imaginary characters in childhood
- ③ ways of helping adolescents develop good reading habits
- ④ continued engagement in altered forms of play after childhood
- ⑤ effects of narrative structures on readers' imaginations

**해석**

아이들은 (역할) 놀이와 이야기로의 몰입이 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쉽게 그 둘 사이를 이동한다. 이야기식 구조의 해적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영화를 감상하면서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역할을 맡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아동기의 놀이를 그만둔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대신에, 이런 활동의 기반과 흥미가 바뀌어 스포츠 활동과 관람으로, 연극, 소설, 영화의 허구로, 그리고 최근에는 비디오 게임으로 발전한다. 허구에서 사람들은 있을 법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세계에서 감정들을 경험하면, 이는 우리가 일관되지 않거나 퇴행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은유적 변신을 시도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23번 주제추론 글 읽는 방법에 대하여 -absorption? 나도 모른다.

### Solution

absorption을 첫줄에서 보셨을 때 어땠나요? play는 그럴 듯 했는데, absorption in story에 대해서 이야기에서의 몰입? 그것 사이에 쉽게 이동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거기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영어를 읽을 때 문장을 읽었을 때, 바로 한큐에 아~ 이거 이런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장을 읽을 때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문장은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낯선 개념이나 이해가 안 될말들을 그냥 읽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꼼꼼히 읽으면 분명 이해됩니다. 해봅시다!

### Comprehension

[글의 이해]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between play and absorption in a story, as if both are forms of the same activity.

아이들은 놀이와 이야기에서의 몰입이 같은 활동의 형태인것처럼 쉽게 그 둘 사이를 왔다갔다 한 대! 무슨말일까? 그게 같은 활동의 형태인것처럼 왔다갔다한다라는게 뭘까?

The taking of roles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 is not very different than the taking of roles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as one watches a movie.

이야기식 구조에서의 해적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뭘까? 앞에 두 대상이 나왔잖아? 하나는 play, 하나는 absorption 이었잖아? 그럼 해적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해적놀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play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그건, 영화를 감상하면서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역할을 맡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건 뭘까? 남은 대상은 하나 absorption in a story 이니까! 이야기에서의 몰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을 동일시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게 결국 아이들이 노력없이 그게 비슷한 활동인것처럼 왔다갔다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

It might be thought that,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 but this is not so. Instead, the bases and interests of this activity change and develop to playing and watching sports, to the fiction of plays, novels, and movies, and nowadays to video games.

청소년기에 자라면서, 사람들이 어린시절의 놀이를 포기한다라고 생각되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Instead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나오면서 설명해주고 있어. 이러한 활동 (=어린 시절의 놀이) 의 기반과 흥미는 스포츠를 하거나 보는데나, 연극과 소설, 영화의 허구에, 그리고 비디오게임으로 바뀌고 발전한대.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는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방향이 변한다라는 말이란 걸 알 수 있어!

In fiction, one can enter possible worlds. When we experience emotions in such worlds, this is not a sign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or regressed. It derives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s of our selves in new ways, in new worlds, in ways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허구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있을 법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대. 우리가 그러한 세계(있을 법한 세상)에서 감정을 경험할때, 이걸 우리가 일관되지 않거나, 후퇴했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건 은유적 변신을 우리 스스로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있을법한 세계에 몰입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감을 잃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이야기야!

#### ④ continued engagement in altered forms of play after childhood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우리가 어린시절 이후에 놀이에 있어서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정답은 4번!

**31번 빈칸**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academic  
discipline**

학과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or palaeontology, and of particular figures such as the art critic, ~

학과의 성장과 미술사학이나 고생물학과 같은 하위 학과의 성장, 그리고 미술평론가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

002  
**figure**

인물, 수치, 숫자, 모습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or palaeontology, and of particular figures such as the art critic, ~

학과의 성장과 미술사학이나 고생물학과 같은 하위 학과의 성장, 그리고 미술평론가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

003  
**draw apart**

~ 떨어져가다, 사라져가다

Moreover,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계다가, 19세기 말엽에 박물관과 대학이 더욱 멀어지면서, ~

004  
**naked eye**

육안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edge knowledge.

과학의 참으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 점점 더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고, 수집된 것들에 대한 분류는 더 이상 최첨단의 지식을 생산할 가망이 없었다.

005  
**cutting-edge**

최첨단의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edge knowledge.

과학의 참으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 점점 더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고, 수집된 것들에 대한 분류는 더 이상 최첨단의 지식을 생산할 가망이 없었다.

006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선택지)

To be sure some people want unconditional acceptance by their “in” group. [EBS]

확실히,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내집단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이 되기를 바란다.

## Sentence Structure

1.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or palaeontology, and of particular figures such as the art critic, helped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주어부분은 The growth ~ 부분부터 such as the art critic, 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주어부분에 대해서 the growth 다음에 of academic ~ 가 1번, 그리고 and 다음에 of particular figures 부분이 2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the growth에 두 개의 of 표현이 걸리는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동사는 helped 의 영향에 produce라는 동사원형이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2. Moreover,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as the idea of objects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

as 부사절 2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as museums~ 부분이 as 부사절 하나, 그런 다음에 as the idea of objects~부분이 두 번째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절은 collecting began~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구문해석

1. 학과의 성장과 미술사학이나 고생물학과 같은 하위 학과의 성장, 그리고 미술평론가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은 비록 힘든 일로 남게 되었지만,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정리하기 위한 원칙과 관행의 도출에 도움이 되었다.
2. 게다가, 19세기 말엽에 박물관과 대학이 더욱 멀어지면서,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는 매우 가치 있는 경로로서 대상이라는 개념이 쇠퇴하면서, 수집은 특히 과학에서 가치 있는 지적 활동으로써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31번 빈칸추론** 시그니처 해설지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or palaeontology, and of particular figures such as the art critic, helped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Moreover,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as the idea of objects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edge knowledge.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to indicate a pursuit of \_\_\_\_\_ academic status.

\* palaeontology: 고생물학 \*\* adjective: 형용사

- ① competitive                      ② novel                              ③ secondary                      ④ reliable                      ⑤ unconditional

## 해석

학과의 성장과 미술사학이나 고생물학과 같은 하위 학과의 성장, 그리고 미술평론가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은 비록 힘든 일로 남게 되었지만,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정리하기 위한 원칙과 관행의 도출에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19세기 말엽에 박물관과 대학이 더욱 멀어지면서,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는 매우 가치 있는 경로로서 대상이라는 개념이 쇠퇴하면서, 수집은 특히 과학에서 가치 있는 지적 활동으로써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과학의 참으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 점점 더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고, 수집된 것들에 대한 분류는 더 이상 최첨단의 지식을 생산할 가망이 없었다. ‘나비 채집’이라는 용어는 ‘한낱(mere)’이라는 형용사와 사용되어, 부차적인 학문적 지위의 추구를 나타낼 수 있었다.

**31번 빈칸추론** 빈칸추론 풀이법 (1) 재진술 & 접속사의 논리관계는 일관되어야 한다.

**Solution**

이 글은 결국 첫문장부터 끝문장까지, 다 같은말을 하고 있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보이지만, 사실 같은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한번 catch를 한다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되는것이죠. 특히 중간 2번째 문장에 moreover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늘 접속사의 논리적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독해하셔야만 합니다. 게다가 5번 unconditional 의 단어 뜻을 잘못알아 찍었다는 친구들이 종종 눈에 띄었는데, 단어 암기는 늘 정확히^^...

**Comprehension**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or palaeontology, and of particular figures such as the art critic, helped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학과의 성장, 하위학과의 성장이나, 미술평론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은 지킬 가치가있는 것을 선택하고 정리하기 위한 원칙과 관행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다만 그게 힘든일로 남게되었대. 이 문장만 읽어서는 어떤 관계나, 구체적으로 논리적인 연결이나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첫문장은 정확히 읽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꼭 잡고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면 연결시킬 덩어리가 분명 나올테니, 정확히 기억한 상태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자.

Moreover,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as the idea of objects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

구문이 되게 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듯해ㅠ 그래도 읽어보자면, 게다가 19세기 말정도부터, 대학과 박물관이 멀어지고, 세상을 알게 되는 가치 있는 경로로써 물체라는 개념이 쇠퇴하게 되면서, '수집'은 그것의 지적인 추구에 있어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대. 특히 과학에서 말이야.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방향이라는 점을 Moreover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즉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읽어야한다 라는거지! 뒷문장에서 (Moreover)뒤에, 'collecting' (수집)이라는 것이 결국 지적 추구으로써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니까, 앞에서도 결국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독해를 해보자면,

helped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에서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 of keeping에서 keeping을 collecting정도로 본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원칙을 만든다라는 말은 결국 수집 자체가 지적추구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어. 착각하지 말아야할 것은, 절대로 1번째 문장이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있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Moreover이라는 접속사가 왜 나왔겠어? 접속사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 시그니처에서도 이야기했었어! 여기서 선별하고, 선택한다라는 원칙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결국, collecting이라는 것에 대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절대 역으로 읽어서 헛갈리지 말도록 하자.

**31번 빈칸추론** 빈칸추론 풀이법 (1) 재진술 & 접속사의 논리관계는 일관되어야 한다.

Comprehension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edge knowledge.

여기서도 그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과학의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고, 수집된 물체들의 분류는 더 이상 최첨단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가 없게 되었다. 즉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물체들을 그저 분류하기만 하는 것이 새로운 최첨단의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라는 말인거지! 이 역시 collecting의 지적 추구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여기서도, 마지막에 collecting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가 있는데, 나비 채집이라는 용어는 ‘한낱’ (mere)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이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즉 정말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한 것을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

to indicate a pursuit of \_\_\_\_\_ academic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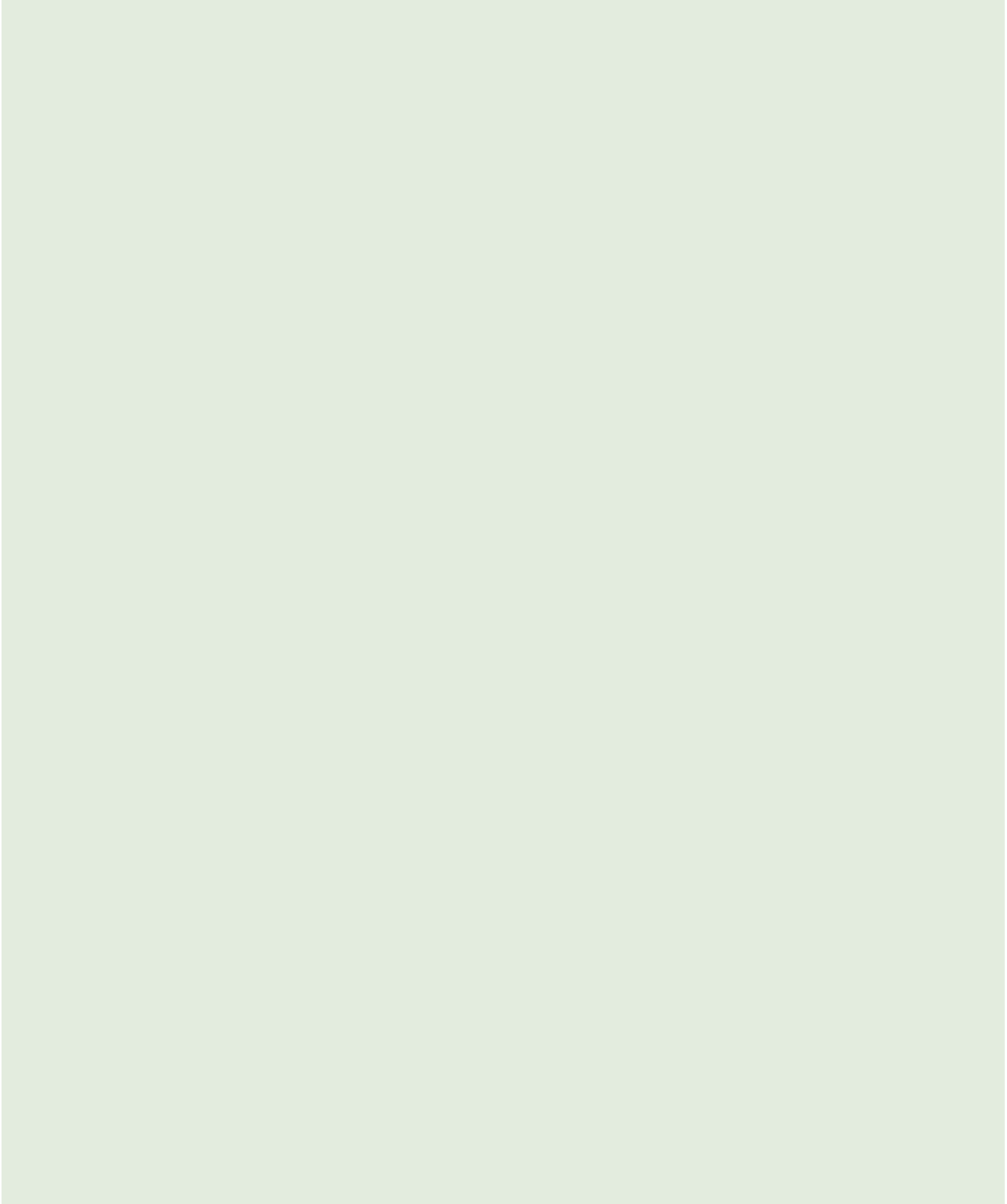
그럼 collecting의 학문적 지위가 뭘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정도가 빈칸에 들어가면 될테니, 정답은 3번, secondary!

cf) 5번을 찍은 친구들이 19% 정도였는데, unconditional은 조건이 나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이라는 의미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해둬! 늘 단어는 정확히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 메모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던 중요한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합시다!



**32번 빈칸**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self-  
ignorance

자기무지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emphasizes “strategic self-ignorance,”

정보 탐색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 일부는 '전략적 자기 무지'를 강조하는 데~

002  
engage in

~에 참여[관여]하다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emphasizes “strategic self-ignorance,” understood as “the use of ignorance as an excuse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정보 탐색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 일부는 '전략적 자기 무지'를 강조하는 데, 이는 '무지를 핑계로 자신의 미래 자아에 해로울 수도 있는 즐거운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003  
present-  
biased

현재에 편향되어 있는

The idea here is that if people are present-biased, ~

여기서의 생각은, 만약 사람들이 현재에 편향되어 있다면,~

004  
trade-off

절충, 균형, 거래

because it would produce guilt or shame, perhaps because it would suggest an aggregate trade-off that would counsel against engaging in such activities.

아마도 그것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충고할 총체적 절충을 제안할 것이기 때 문일 것이다.

**Sentence Structure**

1.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emphasizes “strategic self-ignorance,” understood as “the use of ignorance as an excuse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여기서 understood as~는 앞에 있는 strategic self-ignorance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s는 여기서는 전치사로 사용되어서 ~로써라고 해석하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구문해석**

1. 정보 탐색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 일부는 '전략적 자기 무지'를 강조하는 데, 이는 '무지를 핑계로 자신의 미래 자아에 해로울 수도 있는 즐거운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emphasizes “strategic self-ignorance,” understood as “the use of ignorance as an excuse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The idea here is that if people are present-biased, they might avoid information that would \_\_\_\_\_ — perhaps because it would produce guilt or shame, perhaps because it would suggest an aggregate trade-off that would counsel against engaging in such activities. St. Augustine famously said, “God give me chastity — tomorrow.” Present-biased agents think: “Please let me know the risks — tomorrow.” Whenever people are thinking about engaging in an activity with short-term benefits but long-term costs, they might prefer to delay receipt of important information. The same point might hold about information that could make people sad or mad: “Please tell me what I need to know — tomorrow.”

\* aggregate: 합계의 \*\* chastity: 정결

- ① highlight the value of preferred activities
- ② make current activities less attractive
- ③ cut their attachment to past activities
- ④ enable them to enjoy more activities
- ⑤ potentially become known to others

해석

정보 탐색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 일부는 ‘전략적 자기 무지’를 강조하는 데, 이는 ‘무지를 핑계로 자신의 미래 자아에 해로울 수도 있는 즐거운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의 생각은, 만약 사람들이 현재에 편향되어 있다면,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정보를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마도 그것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충고할 총체적 절충을 제안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성 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제게 정결을 내일 주시옵소서.”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현재에 편향되어 있는 행위자들은 “제가 위험을 내일 알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단기적인 혜택은 있지만 장기적인 대가가 있는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마다, 그들은 중요한 정보의 수신을 미루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도 똑같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을 내일 말해 주세요.”

### 32번 빈칸추론 빈칸추론 풀이법 (1) 재진술 - 같은 말을 대응 시키면 문장에서 정보가 보인다

#### Solution

이 문제 풀이는 2가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논리에 기반해서, 빈칸 앞부분에 있는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빈칸까지 연결시켜 정답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해설강의를 해보니 거의 이 방법으로 푼 친구들은 없더군요) 두 번째는, 뒤에서 tomorrow라고 3번이나 반복되는 예시, 즉 G-S 구조를 통해서, 예시의 이해를 통해서 정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설을 첫 번째로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예시를 통해서 정답을 내는 것으 그냥 읽고 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답의 안정성, 그리고 글 독해의 꼼꼼함을 위해서라도 첫 번째 방법 역시 제대로 봐두시길 바랍니다.

#### Comprehension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emphasizes “strategic self-ignorance,” understood as “the use of ignorance as an excuse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첫문장을 정확히 읽어보도록 하자! 정보 탐색에 있어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중 하나는 '전략적 자기무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는 무지를 핑계로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에 해로울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를 아래의 말들과 연결시켜보도록 할게. 잘 읽어보도록 하자!

The idea here is that if people are present-biased, they might avoid information that would \_\_\_\_\_

여기서, if people are present-biased, 즉 사람들이 현재에 편향되어져 있다라는 말은, 그 한 사람에게 미래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거 이해돼? 즉, 지금 현재에 편향되어져있다라는 말은,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깐, 이는 미래에 대해서 편향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if people are present-biased = activities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A) 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they might avoid (부정어 빈칸 조심하자!) information that would \_\_\_\_\_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빈칸은, 앞 문장의 기준을 B라고 잡으면, ~B가 들어가야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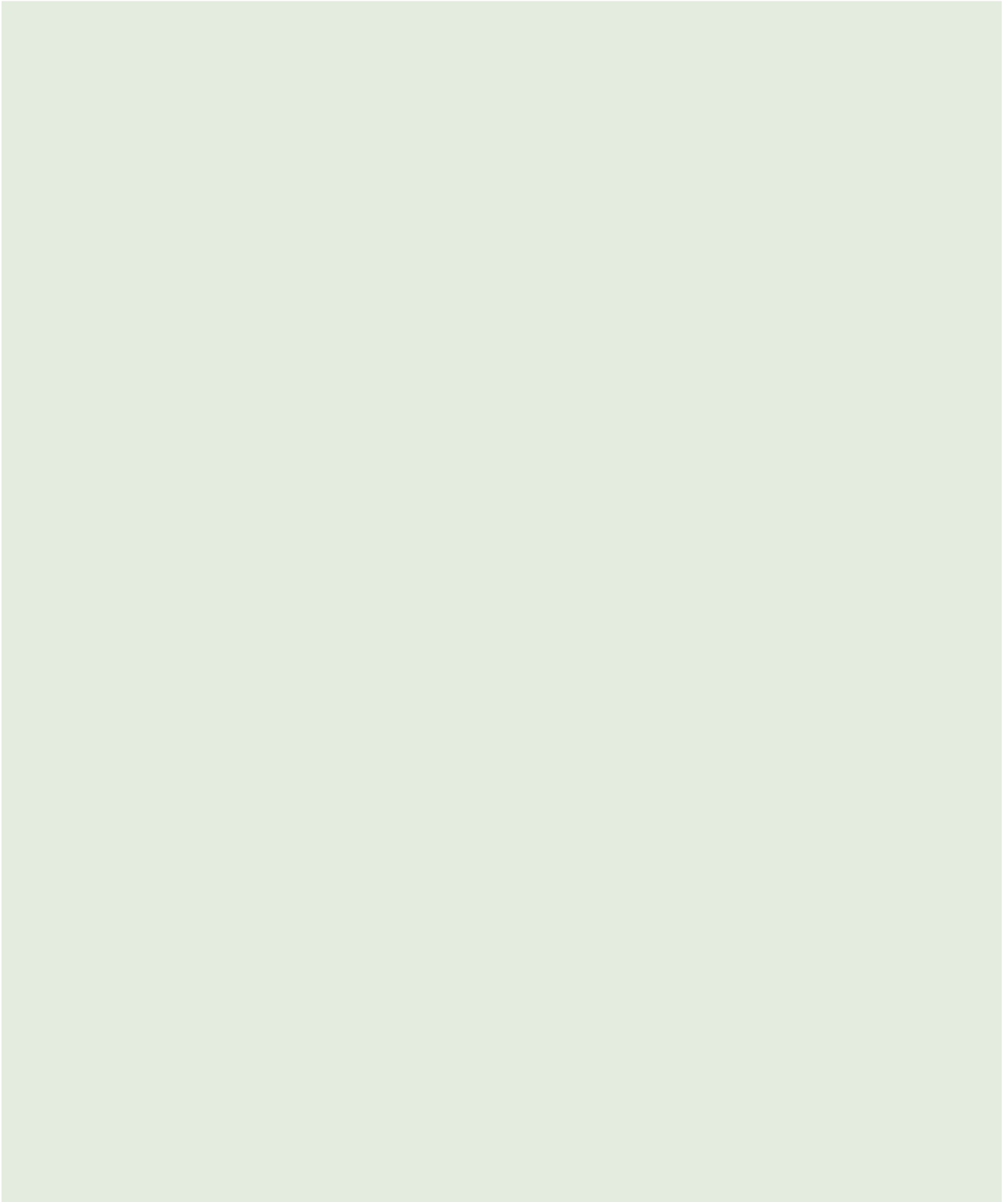
an excuse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가 B라고 할 수 있겠지! 과도하게 기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변명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깐, 빈칸에 들어갈 말은 'not pleasurable'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즉, 재진술을 활용해서 제대로 읽어 낼 수 있는 거지!

② make current activities less attractive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less attractive는 결국 not pleasurabl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current가 들어가는 이유는 present-biased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재진술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점을 Signature Intro 파트에서 Paraphrasing 파트에서도 충분히 강조했었으니 꼭 이 문제 해설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까지 보길 바래!

## 메모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던 중요한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합시다!



**33번 빈칸**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statement

진술

Concepts of nature are always cultural statements.

자연에 대한 개념은 항상 문학적 진술이다.

002  
strike - as

~에게 ...이라는 인상[느낌]을 주다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much of an insight, for Europe's landscape is so much of a blend.

이것은 유럽인들에게 대단한 통찰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의 풍경은 너무나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003  
fond

허황된, 애정 어린

For that reason, they had the fond conceit of primeval nature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s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in an admiration for wilderness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후에 황야에 대한 감탄에서 표현을 찾을 수 있었던 인간과의 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원시 자연이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004  
self-regulating

자율적인

Ecological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and in this sense 'nature'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생태학적 관계는 확실히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인간의 개입과 무관하게, 자율적이지만 반드시 안정적이지는 않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entence Structure**

1. Ecological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and in this sense 'nature'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여기서 not necessarily는 부분부정 표현으로서 앞에 있는 stable을 꾸며준다, 그러면서도 뒤에 있는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은 앞에있는 dynamic을 수식해준다.

**구문해석**

1. 생태학적 관계는 확실히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인간의 개입과 무관하게, 자율적이지만 반드시 안정적이지는 않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oncepts of nature are always cultural statements.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much of an insight, for Europe’s landscape is so much of a blend. But in the new worlds — ‘new’ at least to Europeans — the distinction appeared much clearer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but also to their descendants. For that reason, they had the fond conceit of primeval nature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s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in an admiration for wilderness. Ecological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and in this sense ‘nature’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But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s \_\_\_\_\_ . We may not determine how or what a lion eats but we certainly can regulate where the lion feeds.

\* conceit: 생각 \*\* primeval: 원시(시대)의, \*\*\* ecological: 생태학의

- ① has supported new environment-friendly policies
- ② has increasingly been set by humanity
- ③ inspires creative cultural practices
- ④ changes too frequently to be regulated
- ⑤ has been affected by various natural conditions

해석

자연에 대한 개념은 항상 문학적 진술이다. 이것은 유럽인들에게 대단한 통찰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의 풍경은 너무나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적어도 유럽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에서, 그 차이는 유럽 정착민과 방문객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훨씬 더 분명해 보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후에 황야에 대한 감탄에서 표현을 찾을 수 있었던 인간과의 연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원시 자연이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생태학적 관계는 확실히 그 나라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인간의 개입과 무관하게, 자율적이지만 반드시 안정적이지는 않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태학적 상호작용의 맥락은 점점 더 인류에 의해 설정되어 왔다. 우리는 사자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먹는지는 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자가 어디에서 먹이를 먹을지는 확실히 규제할 수 있다.

**33번 빈칸추론** 빈칸추론 유의사항(1) A/B 대조논리에 대한 속지 ~글이 나뉘면 나누어서 읽는다.

**Solution**

글의 난도가 어렵지만, 헛갈리는 선택지는 그렇게 없는 듯 합니다. 이 글 역시 A/B 대조논리로 독해할 수 있는 글이고, 자리에 대한 이해와 접속사의 논리관계에 대해서만 뚜렷하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명쾌하게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Comprehension**

Concepts of nature are always cultural statements.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much of an insight, for Europe's landscape is so much of a blend.

자연에 대한 개념은 언제나 문화적 진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이걸 유럽인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놀랍지 않은 개념일 수 있는데, 유럽의 경치라는 것은 언제나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래. 이 문장만 읽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듯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보자!

But in the new worlds — 'new' at least to Europeans — the distinction appeared much clearer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but also to their descendants.

하지만, 새로운 세계 (그게 적어도 유럽인들에겐 그럴꺼래), 차이는 유럽 정착민과 방문객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명확해 보였대. 유럽의 풍경은 blend의 모습이었는데, in new worlds에서는 'the distinction' 구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두 대상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또한 역시 but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와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두 대상의 차이를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자면 Europeans은 결국 'blend'에 해당하고, in the new worlds는 the distinction이라고 할 수 있겠네! 각각을 A와 B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독해를 해보도록 하자. B의 이야기가 계속 될거야.

For that reason, they had the fond conceit of primeval nature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s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in an admiration for wilderness.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에 대한거냐면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원시자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 그게 나중에, 야생에 대한 감탄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이었대. 여기서 B에 대한 생각이, 인간에 의해서 통제 되어지지 않는 원시자연이라는 생각임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

Ecological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and in this sense 'nature'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생태학적 관계는, 그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인 존재처럼 보이고, 그리고 꼭 안정적이지 않은 많은 역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대. 그러니까 원시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의 개입과는 무관하고, 그리고 변동이 심한 존재라는 것이지. 이게 B, in the new world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

But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s \_\_\_\_\_.

But이라는 맥락이 나왔다면, 앞에 나왔던 B의 이야기, 즉 인간의 개입과는 무관한 원시자연이라는 맥락이 다른 말로 바뀔 수 있다라는 '역접'의 맥락임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지? 하지만 생태학적 교류의 맥락은 빈칸했대. But을 통해서 ~B라고 써도 괜찮지만,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빼박 해보도록 하자.



**33번 빈칸추론** 빈칸추론 유의사항(1) A/B 대조논리에 대한 속지 -글이 나뉘면 나누어서 읽는다.

**Comprehension**

We may not determine how or what a lion eats (=B) but we certainly can regulate where the lion feeds. (=~B)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사자가 먹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앞에서 B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 고, 그런 다음에 역접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사자가 어디서 먹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에 개입할 수 있다는 ~B의 말이므로, 빈칸에 ~B가 들어감을 알 수 있겠지!

② has increasingly been set by humanity

정답은 2번!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2번 선택지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어.

⑤ has been affected by various natural conditions

5번은 정답이 안되는 이유는,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이는 인류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야. by뒤에 행위자가 바뀌어야만 해.

(cf) 결국 마지막에 자연에 인간이 개입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유럽인의 blend, 자연과 문화가 섞여있다라는 말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 the distinction은 자연과 문화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즉 But 뒤에 있는 빈칸은 A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거고, 그게 곧 ~B라고 할 수 있는거지.

**34번 빈칸**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aggressive**

공격적인

As Brindley suggests, the overlapping of song may be an aggressive response.

Brindley가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겹치게 하는 것은 공격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002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짓다 [선택지]

the robins associate locality with familiar songs

올새들은 장소와 익숙한 노래를 연관짓는다.

003  
**locality**

장소 [선택지]

the robins associate locality with familiar songs

올새들은 장소와 익숙한 노래를 연관짓는다.

**Sentence Structure**

1. However, this difference in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stranger occurred only when the neighbor's song was played by a loudspeaker placed at the boundary between that neighbor's territory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when절을 인과로 읽어내는 것이 좋은 문장이다(그 이유는 나중에 독해할 때 설명하겠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 대해서 when 절 아래가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조건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과추론 빈칸에서 when을 가지고 인과를 제시할 때도 있으므로 정확히 해석하도록 하자. 마지막에 있는 between A and B에서 A는 that neighbor's territory에, B는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라고 할 수 있다.

2. If the same neighbor's song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one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it was treated as the call of a stranger.

another boundary에 대해서 동격어구 (one separating~) 가 설명해주고 있다. 동격어구는 앞에 불분명한 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꼼꼼하게 해석해야만 한다. 마지막에 있는 treat A as B는 수동형으로 be treated as~ 형태로 와있다고 볼 수 있다.

**구문해석**

- 그러나 이웃 새와 낯선 새에 대한 반응의 이러한 차이는, 이웃 새의 영역과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새의 영역 사이의 경계에 놓인 확성기로 이웃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만 발생했다.
- 같은 이웃 새의 노래를 다른 경계, 즉 실험 대상의 영역을 또 다른 이웃 새의 영역과 분리해 주는 경계에서 들었을 경우, 그것은 낯선 새의 울음으로 취급되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mma Brindley has investigated the responses of European robins to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Despite the large and complex song repertoire of European robins, they wer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When they heard a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they began to sing sooner, sang more songs, and overlapped their songs with the playback more often than they did on hearing a neighbor's song. As Brindley suggests, the overlapping of song may be an aggressive response. However, this difference in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stranger occurred only when the neighbor's song was played by a loudspeaker placed at the boundary between that neighbor's territory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If the same neighbor's song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one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it was treated as the call of a stranger. Not only does this result demonstrate that \_\_\_\_\_, but it also shows that the choice of songs used in playback experiments is highly important.

\* robin: 올새 \*\* territory: 영역

- ① variety and complexity characterize the robins' songs
- ② song volume affects the robins' aggressive behavior
- ③ the robins' poor territorial sense is a key to survival
- ④ the robins associate locality with familiar songs
- ⑤ the robins are less responsive to recorded songs

해석

Emma Brindley는 이웃 새와 낯선 새의 노래에 유럽 올새가 보이는 반응을 조사해 왔다. 유럽 올새의 크고 복잡한 노래 목록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웃 새와 낯선 새의 노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낯선 새의 테이프 녹음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은 이웃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랬던 것보다, 더 빨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더 많은 노래를 불렀으며, 더 자주 자기 노래를 재생된 노래와 겹치게 불렀다. Brindley가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겹치게 하는 것은 공격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웃 새와 낯선 새에 대한 반응의 이러한 차이는, 이웃 새의 영역과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새의 영역 사이의 경계에 놓인 확성기로 이웃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만 발생했다. 같은 이웃 새의 노래를 다른 경계, 즉 실험 대상의 영역을 또 다른 이웃 새의 영역과 분리해 주는 경계에서 들었을 경우, 그것은 낯선 새의 울음으로 취급되었다. 이 결과는 올새가 장소를 친숙한 노래와 연관시킨다는 것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또한 (녹음 소리) 재생 실험에 사용되는 노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4번 빈칸추론 빈칸추론 유의사항 (5) 인과는 정해져있다 - B style

#### Solution

인과추론 Bstyle, 즉 글에서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주고, 그것을 재진술형태로 빈칸을 묻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그니처에서 그대로 적어놨었던 내용이고, 실제로 이 문제 스타일도 시그니처내부에 있는 예시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만큼 정확히 인식해서, 무엇을 묻는지 알고,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Comprehension

Emma Brindley has investigated the responses of European robins to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Despite the large and complex song repertoire of European robins, they wer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When they heard a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they began to sing sooner, sang more songs, and overlapped their songs with the playback more often than they did on hearing a neighbor's song. As Brindley suggests, the overlapping of song may be an aggressive response.

Emma Brindley는 이웃 새와 낯선새의 노래에 유럽 올새가 보이는 반응을 조사했는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낯선새의 테이프 녹음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웃새 노래보다 더 빨리 노래를 부르고, 더 많이 부르고, 더 자주 오버랩 되게 불렀다. 그리고 이는 공격적 반응일 수 있다. 그런 정보만 정확히 읽으면 됐을 것 같아!

However, this difference in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stranger occurred only [결과=B] when the neighbor's song was played by a loudspeaker placed at the boundary between that neighbor's territory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원인=A]

하지만, 이웃새와 낯선 새의 반응에 대한 이런 차이는, 유일하게 발생했는데 (이를 결과라고 둘게, 밑에 when절이 결국 그 경우, 조건과 원인을 설명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그게 언제냐면, 이웃 새의 영역과 실험대상이 된 새 영역 사이에 경계에 놓인 확성기로 이웃 새의 노래를 틀었을때만 발생한다. 이를 나는 '이웃새와 낯선새의 반응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놓고, 이를 A라고 적어둘게.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늘 정확히 짚어야만 해.

If the same neighbor's song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one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it was treated as the call of a stranger.

만약, 같은 이웃의 노래가 실험 대상의 영역을 또 다른 이웃 새의 영역과 분리해주는 경계에서 틀었을 때, 이는 낯선 새의 울음으로 취급되었다. 즉, If the same neighbor's song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one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이 부분은, 아까와 다른 경계니까 ~A라고 할 수 있겠고, 원인이 부정되었으니까, it was treated as the call of a stranger. 즉, 이웃새와 낯선새 사이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결과의 부정 (~B) 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인과가 2번에 걸쳐서 강화되었고 정리해보자면!

이웃 새의 영역과 실험대상의 영역의 경계에 있느냐 없느냐 (A) 에 따라 => 그 노래를 이웃새와 낯선 새 차이의 구분을 적용하여 듣냐 안듣냐(B)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다 준것이라고 할 수 있지!

Not only does this result (=A) demonstrate that \_\_\_\_\_,

이러한 결과 (결국 이웃새와 낯선새 차이의 구분을 하나 안하냐 =A)는 빈칸을 설명하는데, 이 자리에는 원인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경계에 있느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 (=B)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줬으니까 정확히 독해해서 잘 집어넣기만 하면 돼!

**34번 빈칸추론** 빈칸추론 유의사항 (5) 인과는 정해져있다 - B style

Comprehension ④ the robins associate locality with familiar songs

정답은 4번! 결국 경계 (boundary)라는 말은 locality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수 있겠지? 인과 추론 B style은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잡지 않으면, 산으로 가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숙지해두도록 해!

**36번 글의 순서**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spatial

공간적인

Spat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공간 기준점(공간적으로 기준이 되는 장소)은 자기 자신 보다 더 크다

002  
reference  
point

기준점

Spat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공간 기준점(공간적으로 기준이 되는 장소)은 자기 자신 보다 더 크다

003  
coherent

장소 [선택지]

Judgments of distance, then,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그렇다면, 거리에 관한 추정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004  
remarkable

주목할 만한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are judged shorter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주목할 만한 결과는 평범한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장소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다고 추정된다는 것이다.

**Sentence Structure**

1.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violates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Euclidean distance, that the distance from A to B must be the same as the distance from B to A. Judgments of distance, then,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여기서 주어는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이고 동사는 violate라고 할 수 있다. Euclidean distance뒤에 나오는 ,와 그 말들은 결국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주는 동격어구라고 할 수 있다.

**구문해석**

1. 거리 추정에 관한 이 비대칭은,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B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유클리드 거리 법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거리에 관한 추정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pat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This isn't really a paradox: landmarks are themselves, but they also define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A)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the distances between pairs of locations, some to landmarks, some to ordinary buildings on campus.

(B)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violates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Euclidean distance, that the distance from A to B must be the same as the distance from B to A. Judgments of distance, then,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C)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are judged shorter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So,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from Pierre's house to the Eiffel Tower to be shorter tha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Pierre's house. Like black holes, landmarks seem to pull ordinary locations toward themselves, but ordinary places do not.

\* asymmetry: 비대칭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 ④ (C) - (A) - (B)                      ⑤ (C) - (B) - (A)

### 해석 (순서스포주의)

공간 기준점(공간적으로 기준이 되는 장소)은 자기 자신 보다 더 크다. 이것은 그다지 역설적이지 않은데, 랜드마크 (주요 지형지물) 는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 주변 지역을 (자신의 범위로) 규정하기도 한다. (A)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반복되어온 한 전형적인 예에서, 연구원들은 학생들에게서 캠퍼스 랜드마크의 목록을 수집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른 학생 집단에게 쌍으로 이루어진 장소 사이의 거리, 즉 캠퍼스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 어떤 장소에서 평범한 건물까지의 거리는 얼마인지를 추정하라고 요청한다. (C) 주목할 만한 결과는 평범한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장소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다고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Pierre의 집에서 에펠탑 까지의 거리가 에펠탑 에서 Pierre의 집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다고 추정할 것이다.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는 평범한 장소를 자기 자신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장소들은 그렇지 않다. (B) 거리 추정에 관한 이 비대칭은,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B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유클리드 거리 법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거리에 관한 추정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36번 글의순서 문장삽입 B type(내용상 흐름) (3) 과정-순서의 흐름 & 1번이 정답이 아니라는건 도대체 누구 뉘피셜이니?

**Solution**

이 문제는 문장삽입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과정 순서의 흐름, 즉 내용상 흐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의 행위를 시행하고' -> 그 '결과가 나오는게 상식이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험에 대한 행위를 왜 시행하겠습니까? 내용적 흐름을 한번만 체크해봤다면 C 다음에 A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번이 정답인데, A-C-B가 정답이 될 수 있음은 제가 시그니처에서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1번을 제외하고 읽는다가, 소홀하게 읽는 식은 곤란합니다. 요행 바라지 마세요 제발!

**Comprehension**

Spatial reference points are larger than themselves. This isn't really a paradox: landmarks are themselves, but they also define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장소적 기준점은 그 자신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역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는데, 랜드마크는 그 자신이며, 또한 그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주변지역들을 정의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4번, 즉 C-A를 21%로 가장 많이 틀린 오답으로 선택했는데, A-C-B, 1번이 정답이라는 점을 집중공략하여, 왜 C-A를 택했으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집중해보고, A-C-B의 전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are judged shorter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C part에서는 보면, 'the remarkable finding' 즉, 아주 놀라운 발견은 that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리로부터 랜드마크까지가, 랜드마크부터 일반적인 거리보다 더 짧게 느껴졌다고 얘기합니다.

(A)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researchers first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to estimate the distances between pairs of locations, some to landmarks, some to ordinary buildings on campus.

A Part는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반복되어온 한 전형적인 예에서, 연구원들은 학생들에서 캠퍼스 랜드마크의 목록을 수집한다. 그런 다음엔, 그들은 다른 학생에게 쌍으로 이루어진 장소 사이의 거리, 즉 캠퍼스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 어떤 장소에서 평범한 거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추정하라고 요청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문제는 'ask ~'했더라는 점입니다. 즉 거리를 측정하라고 요청한거죠. 그럼 뒤에 거리를 측정하게 나와야겠죠?

(C)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are judged shorter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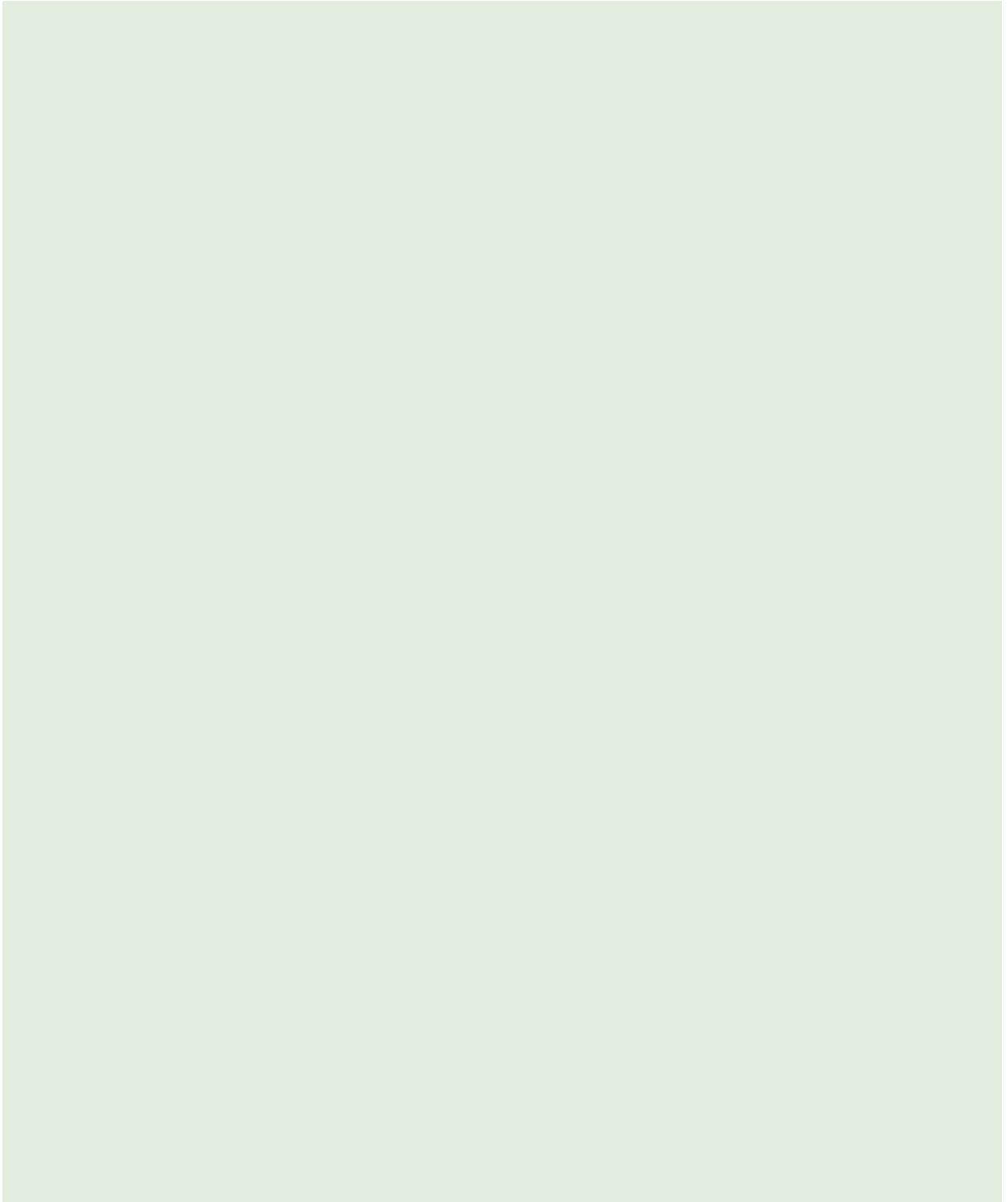
그게 바로 C Part의 거리 측정이고, 이게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왜 나온거죠? A에서 실험에서 집단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한 결과가 바로 C PART라는 것입니다. 즉 측정을 요청하고 난 다음 ->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 요청하는 것은 이상하더라고 말할 수 있는거죠. 그러므로 C-A의 연결은 과정순서의 흐름에서 내용상 너무 어색하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A-C의 순서가 될 수 밖에 없는것이죠.

A-C가 확정되면 (B는 This asymmetry of distance가 나온적이 없으니까 쉽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답이 A-C-B밖에 없긴 하지만, C-B의 연결을 보자면, C 마지막에 So,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from Pierre's house to the Eiffel Tower to be shorter tha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Pierre's house. Like black holes, landmarks seem to pull ordinary locations toward themselves, but ordinary places do not. 즉 거리에 대해서 더 짧고, 더 길게 느껴지는 (사실 같은 거리인데) 이러한 거리의 차이를 (B)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고로 A-C-B입니다.



## 메모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던 중요한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합시다!



**37번 글의 순서**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shipbuilding

## 조선(업)

A firm is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it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한 회사가 조선업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만약 충분히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사업상의) 모험이 수 익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002  
shipyard

## 조선소

There is a “good” outcome, in which both types of investments are made, and both the shipyard and the steelmakers end up profitable and happy.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 내에서는 두 가지 투자 형태가 모두 이루어지고, 조선소와 제강업자 모두 결국 이익을 얻고 만족하게 된다

003  
boil down to

## 결국 ~이 되다

The company’s decision boils down to this: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invest in shipbuilding

그 회사의 결정은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만약 근처에 강철 공장이 있다면, 조선업에 투자하고, ~

37번 글의순서 시그니처 해설지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firm is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it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A) There is a “good” outcome, in which both types of investments are made, and both the shipyard and the steelmakers end up profitable and happy. Equilibrium is reached. Then there is a “bad” outcome, in which neither type of investment is made. This second outcome also is an equilibrium because the decisions not to invest reinforce each other.

(B) Assume that shipyard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Steel producers figure they’ll make money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eir steel, but not otherwise.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 what economists call “multiple equilibrium.”

(C) But one key input is low-cost steel, and it must be produced nearby. The company’s decision boils down to this: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invest in shipbuilding; otherwise, don’t invest. Now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 equilibrium: 균형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 ④ (C) - (A) - (B)                      ⑤ (C) - (B) - (A)

해석 (순서스포주의)

한 회사가 조선업에 투자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만약 충분히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사업상의) 모형이 수익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C) 하지만 한 가지 핵심 투입 요소는 저가의 강철이고, 그것은 근처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그 회사의 결정은 결국 다음과 같이 된다. 만약 근처에 강철 공장이 있다면, 조선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잠재적 강철 투자자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라. (B)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적 강철 소비자 라고 가정하라. 강철 생산자들은 자신의 강철을 구매할 조선소가 있으면 자신이 돈을 벌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복수 균형’이라고 부르는 가능한 두 가지 결과를 갖게 된다. (A)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 내에서는 두 가지 투자 형태가 모두 이루어지고, 조선소와 제강업자 모두 결국 이익을 얻고 만족하게 된다.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 내에서는 (둘 중) 어떤 투자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두 번째 결과 또한 균형이 이루어진 것인데, 왜냐하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37번 글의순서** 글의순서 (4) 같은 말은 붙어 있어야만 한다 (문장의 위상에 대하여)

**Solution**

37번에서는 제가 시그니처에서 강조했던 같은말은 붙어있어야만한다는 원칙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오답을 선택한 비율이 37%였는데, 이는 B-A는 정답을 찍은 사람도, 오답인 2번을 찍은 사람도 모두 붙었는데, C의 위치를 결정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해주고, 결국 B와 C중에서 무엇이 1번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평가원의 코드입니다. 아래 문제에서 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보도록 합시다.

**Comprehension**

A firm is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it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하자. 한 회사가 조선업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네! 만약 충분한 대규모로 생산될 수 있다면, 그건 그 모험이 수익성이 있을거라는걸 알고있대. 여기서는 '조선업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 1번을 결정해보자!

(A) There is a "good" outcome, in which both types of investments are made, and both the shipyard and the steelmakers end up profitable and happy.

(A) 파트는 1번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결과인지 이해도 안되고.. 여기서 맥락이 끊기는 느낌이 드니까, (A)는 제외를 시켜야할 것 같아.

(B) Assume that shipyard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Steel producers figure they'll make money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eir steel, but not otherwise.

(B) 파트는 조선소가 철강의 유일한 소비자임을 가정해보래. 아니 뭐.. 가정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서도 1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확신이 딱 드는 연결은 아니니까, 밑에 있는 C part를 보도록 하자!

(C) But one key input is low-cost steel, and it must be produced nearby.

C part 역시도 1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익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한 핵심투입 요소는 저가의 강철이고, 그게 주변에서 생산되어야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니까, 수익성이 있으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것도 고려해봐야만한다는 맥락이니까 역접도 자연스럽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B,C 둘중에 무엇이 1번이 되어야할까? B와 C 내용 전체를 다 읽어봐. 일단. 그렇게 다 읽었던 전제하에서 해설을 해볼게!

A firm is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it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주어진 문장 - 배를 만드는데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고려=A]

(B) Assume that shipyard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Steel producers figure they'll make money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eir steel, but not otherwise. [철강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B]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 what economists call "multiple equilibrium." [그 고려들에 대한 결과 = C]

(C) But one key input is low-cost steel, and it must be produced nearby. The company's decision boils down to this: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invest in shipbuilding; otherwise, don't invest. [배를 만들려고 투자하려는 기업의 고려=A] Now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철강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 =B] [3점]

### 37번 글의순서 글의순서 (4) 같은 말은 붙어 있어야만 한다 (문장의 위상에 대하여)

**Comprehension** 이렇게 이 글들을 정리해볼 수 있어! C가 B보다 1번으로 와야하는 까닭은, 배를 만드는데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고려사항 (여기서 내가 A라고 적어놓은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야! steel의 비용에 따라서 배를 만드는데 있어서 투자할지 말지 결정한다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주어진 문장에서 나와있었던 배만드는데 투자하려고 하는 입장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 있고, C의 마지막부분에서 '이제 철강에 투자하려고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를 해보자'라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 맥락이란걸 알 수 있어. 이런 부분을 B부분이 받기 때문에, B부분은 철강의 유일한 소비자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지역의 강철투자자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B part 마지막에 이제 그 고려사항들에 대한 결과가 바로 C라고 적어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A part에 연결이 돼서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C-B-A!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애! 이렇게 같은 말이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A firm is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it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주어진 문장 - 배를 만드는데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고려=A] (C) But one key input is low-cost steel, and it must be produced nearby. The company's decision boils down to this: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invest in shipbuilding; otherwise, don't invest. [배를 만들려고 투자하려는 기업의 고려=A] Now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철강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 =B] (B) Assume that shipyard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Steel producers figure they'll make money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eir steel, but not otherwise. [철강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B]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 what economists call “multiple equilibrium.” [그 고려들에 대한 결과 = C] (A) There is a “good” outcome, in which both types of investments are made, and both the shipyard and the steelmakers end up profitable and happy. ~ [그 고려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상술 = C]

**38번 문장삽입**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supervisor

관리자, 감독자

A problem, however, is that supervisors often work in locations apart from their employees and therefore are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하지만, 문제는 관리자가 흔히 직원과 떨어진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002  
implement

시행하다

To eliminate this dilemma, more and more organizations are implementing assessments referred to as 360-degree evaluations.

이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조직이 '다면 평가'라고 불리는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Sentence Structure**

1. A problem, however, is that supervisors often work in locations apart from their employees and therefore are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apart from은 앞에 있는 locations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upervisors are not able to ~ 로 병렬구조로 읽을 수 있어야해.

2. The reason for this approach is that often coworkers and clients or citizens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observe an employee's performance and are in a better position to evaluate many performance dimensions.

이 문장 역시 병렬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coworkers and clients or citizens 들이 are in a better position ~ 이라고 할 수 있어.

**구문해석**

1. 하지만, 문제는 관리자가 흔히 직원과 떨어진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이 방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동료와 고객이나 시민들이 흔히 어떤 직원의 성과를 관찰할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며, 많은 평가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A problem, however, is that supervisors often work in locations apart from their employees and therefore are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In most organizations, the employee's immediate supervisor evaluates the employee's performance. ( ① ) This is because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performance, providing supervision, handing out assignments, and developing the employee. ( ② ) Should supervisors rate employees on performance dimensions they cannot observe? ( ③ ) To eliminate this dilemma, more and more organizations are implementing assessments referred to as 360-degree evaluations. ( ④ ) Employees are rated not only by their supervisors but by coworkers, clients or citizens, professionals in other agencies with whom they work, and subordinates. ( ⑤ ) The reason for this approach is that often coworkers and clients or citizens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observe an employee's performance and are in a better position to evaluate many performance dimensions.

\* subordinate: 부하 직원

## 해석

대부분의 조직에서, 직원의 직속상관은 그 직원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것은 그 관리자가 (직원에게) 감독을 제공하고, 과업을 배정하며, 그 직원을 계발하면서, 그 직원의 성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자가 흔히 직원과 떨어진 장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리자는 자신이 관찰할 수 없는 성과 영역에 대해 직원들을 평가해야 하는가? 이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조직이 '다면 평가'라고 불리는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자신의 관리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동료, 고객이나 시민, 함께 일하는 다른 대행사의 전문가들,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는다. 이 방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동료와 고객이나 시민들이 흔히 어떤 직원의 성과를 관찰할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며, 많은 평가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38번 문장삽입**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1) 남음 - 갑작스러운 they cannot observe!

**Solution**

38번 같은 경우에는, 남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단절을 통해서 감을 잡고,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면 앞뒤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omprehension**

A problem, however, is that supervisors often work in locations apart from their employees and therefore are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역접의 접속사가 같이 나오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네! 내용을 읽어보자. 문제는 감독자들이 장소에서 일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직원들로부터 멀어져있고, 그들의 아랫사람들의 행동을 관찰 할 수 없게 된다. 이것만으로는 무슨 맥락이 나올지 알 수가 없지. 일단 주어진 문장과 정답이 될 해당 앞문장 사이에서는 역접이 나오겠단 의심을 해볼 수 있어!

In most organizations, the employee's immediate supervisor evaluates the employee's performance. ( ① ) This is because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performance, providing supervision, handing out assignments, and developing the employee.

대부분의 조직에서, 지권의 직속 상관은 직원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걸 관리자가 감독, 과업, 직원 개발 등 직원 성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라. 앞에 this 로 이어지는게 자연스러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1번은 어색하지 않은듯!

( ② ) Should supervisors rate employees on performance dimensions they cannot observe?

근데 갑자기 여기서, 'they cannot observe' 라는 말이 튀어나와. 자신이 관찰할수 없는 성과영역에 대해서 평가해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나왔는데, 갑자기 감독자들이 왜 관찰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 맥락이 여기서 끊겼다는걸 알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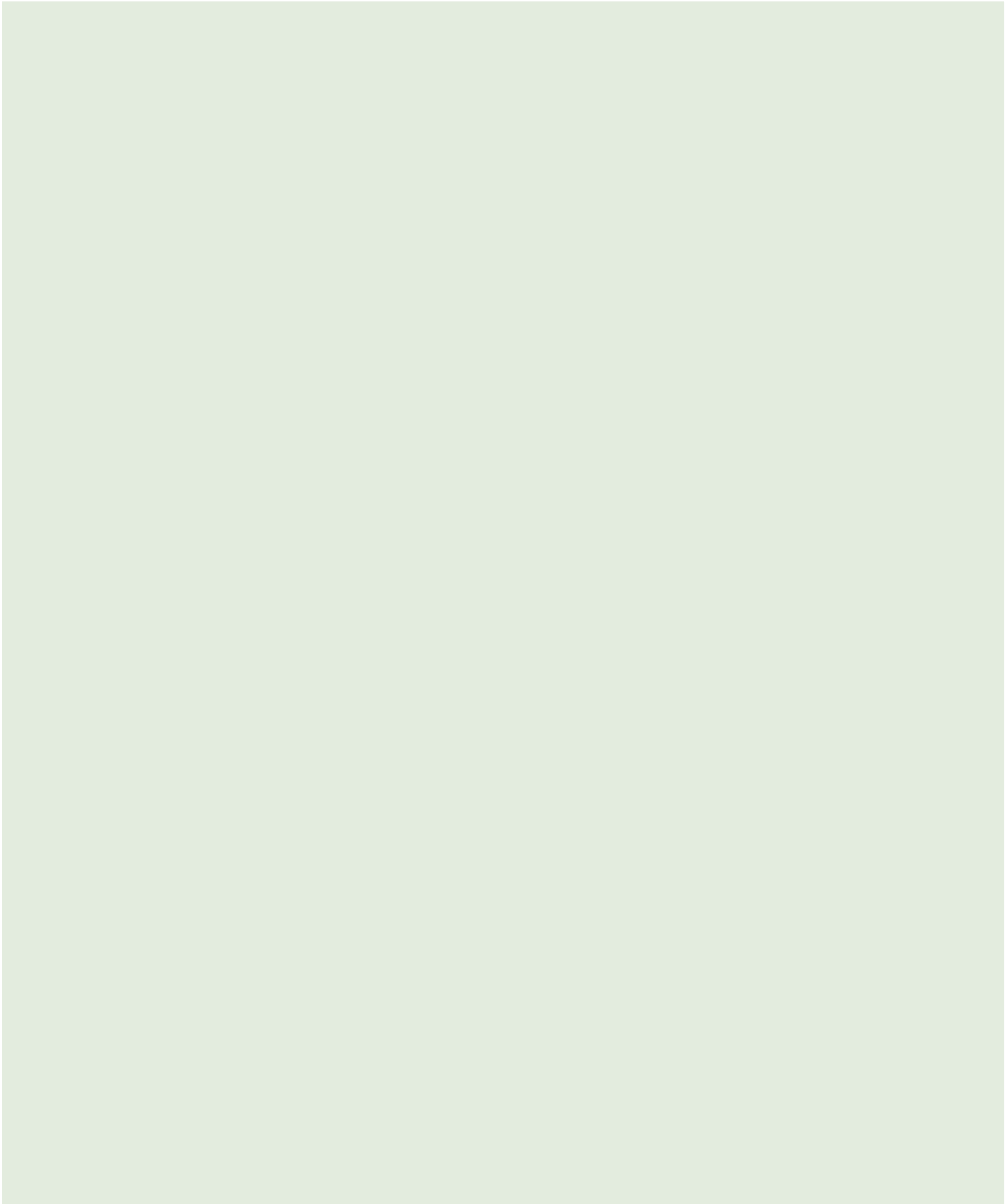
그럼 주어진 문장을 여기에 한번 넣어보자면,

This is because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performance, providing supervision, handing out assignments, and developing the employee. [감독자는 직원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있음, 감독해야함] <-> A problem, however, is that supervisors often work in locations apart from their employees and therefore are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s' performance.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감독자들이 직원들과 멀리 떨어져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 할 수 없게 됨] -> Should supervisors rate employees on performance dimensions they cannot observe? 그럼 관찰 할 수 없는 직원의 성과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해 될 수 있겠지! 맥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 되는 지점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오면서니까, 정답은 2 번이라고 할 수 있어!



## 메모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던 중요한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합시다!



**39번 문장삽입** 구문&어휘 정리

해석이 정확히 되어야만 논리가 설 수 있습니다. 구문과 단어에 대해서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에 뒤에 시그니처의 해설을 봅시다!

001  
**responsiveness**

반응성, 민감성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잠의 한 가지 측면은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그러하다.

002  
**pressing**

긴급한

One possibility is that it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for an animal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한 가지 가능성은 그것(잠)이 더 이상 긴급한 활동이 없을 때 신진대사를 줄이는, 동물에게 유리한 적응적 상태라는 것이다.

003  
**hibernation**

겨울잠

This seems true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such as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and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이것은 먹을 것이 거의 없고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높은 신진대사비용이 드는 겨울 동안의 겨울잠과 같은, 더 깊은 무 활동 상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004  
**predator**

포식자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for instance for a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그것은, 예를 들어,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 어두워진 이후에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것처럼, 또한 일상 상황에도 해당될지도 모른다.

**Sentence Structure**

1. On the other hand,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and the observation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동사 부분이 뒤에 있는 suggests가 본동사라고 할 수 있다. 앞 부분까지가 주어라고 할 수 있다. 주어부분이 많이 길기 때문에 주어 두 부분이 각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구문해석**

1. 다른 한편으로는, 잠의 분명한 보편성, 그리고 고래목의 동물들과 같은 포유동물들이 한 번에 적어도 뇌의 한쪽에서는 잠을 유지하는 매우 고도로 복잡한 기제를 발전시켰다는 관찰 결과는 잠이 생명체에게 생명 유지와 관련된 어떤 도움(들)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 ① ) One possibility is that it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for an animal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 ② ) This seems true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such as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and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 ③ )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for instance for a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 ④ ) On the other hand,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and the observation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 ⑤ ) If sleep is universal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must be paid, the implication may be that it has important functions that cannot be obtained just by quiet, wakeful resting. [3점]

\* metabolism: 신진대사 \*\* mammal: 포유동물

## 해석

진화에 있어서 잠이 하는 역할은 여전히 연구 중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것(잠)이 더 이상 긴급한 활동이 없을 때 신진대사를 줄이는, 동물에게 유리한 적응적 상태라는 것이다. 이것은 먹을 것이 거의 없고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높은 신진대사 비용이 드는 겨울 동안의 겨울잠과 같은, 더 깊은 무활동 상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예를 들어,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 어두워진 이후에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것처럼, 또한 일상 상황에도 해당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잠의 분명한 보편성, 그리고 고래목의 동물들과 같은 포유동물들이 한 번에 적어도 뇌의 한쪽에서는 잠을 유지하는 매우 고도로 복잡한 기제를 발전시켰다는 관찰 결과는 잠이 생명체에게 생명 유지와 관련된 어떤 도움(들)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잠의 한 가지 측면은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가 치러져야 할 때조차도 잠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갖는 함의는 조용한,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그것(잠)이 갖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

**39번 문장삽입**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1) 남음 - 지문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만 On the other hand를 피할 수 있다.

**Solution**

단절 코드가 있었지만, 4번에 On the other hand에서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문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연결을 못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가 대조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의미로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다른 '한편' 으로는 이라는 말 역시 왜 그렇게 썼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글을 꼼꼼히 읽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읽어봅시다.

**Comprehension**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This', 이걸 특히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의 한 측면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성이 감소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것만으로는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잠이 진화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여전히 연구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도록 합시다! 4번 선택지를 이 당시 학생들이 29% (가장 매력적인 오답)을 찍었는데, On the other hand가 왜 와야하는지 바로 이 문장이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 ① ) (1) One possibility is that it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for an animal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하나의 가능성, 뒤에 대한 가능성인가? 바로 잠이 진화에 있어서 하는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겠죠? (1) 번이라고 일단 표시해두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해설을 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잠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리한 적응적 상태인데, 뒤에 대한 그런것이냐면, 동물에게 있어서 감소되어지는 신진 대사에 있어서 유리하게끔 적응되어진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럴때, 긴급한 활동들이 없을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② ) This seems true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such as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and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2번 연결은 자연스럽나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This가 앞문장을 받는다라고 전제해본다면,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and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에는, decreased metabolism이 왜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고, inactivity such as hibernation은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적절하게 G-S 느낌으로 잘붙은 것 같습니다. 2번의 연결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 ③ )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for instance for a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3번 선택지를 보죠. 여기서 주목해야할 말은 바로 'as well'입니다. as well이 왜 나왔나요? 그건 바로 such as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and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을 특정한 상황 (즉 daily situation이 아닌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야 라는 맥락 때문에 as well 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9번 문장삽입**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1) 남음 - 지문의 구조를 볼 수 있어(만 On the other hand를 피할 수 있다.

**Comprehension** 내용을 읽어볼까요? 이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역시 사실인데, 그 예시로 나온게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 어두워진 이후에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잠이 활동하지 않음을 통해서 장점이 되는 것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3번 연결 역시도 자연스럽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On the other hand,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and the observation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문제는 바로 이 4번 선택지입니다. On the other hand가 왜 나온건가요? 맞습니다. On the other hand가 대조적으로 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말의 쓰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보신다 하더라도요, 왜 다른 한편인가요? 그 표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선택지를 찍은 29% 학생들처럼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다!

첫 문장으로 돌아가볼까요?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라고 했습니다. 진화에 있어서 잠의 역할이 연구중이라고 했죠.

(1) One possibility is that it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for an animal~ 그게 이때까지 4번 앞까지 얘기한, '활동하지 않음' 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On the other hand가 제시된 것은, 그것 이상의, 즉 활동하지 않는 것 말고의 다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 (one possibility에 대한 것 말고)을 언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을 확인 해보면 sleep 'additionally provides~라고 얘기하는 이유 역시, 다른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on the other hand 라는 접속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는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글을 꼼꼼히 독해하셨어야만, 여기서 On the other hand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On the other hand, ~~,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이제 4번 선택지의 내용을 봅시다. 문장이 굉장히 길어서 부담 스러우신 면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and the observation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명백한 잠의 보편성과 그리고 고래목과 같은 포유동물들이 한번에 적어도 뇌의 한쪽에서는 잠을 유지하는 매우 고도로 복잡한 기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결과는, 잠이 생명체에 생명 유지와 관련된 어떤 도움을 추가로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복잡한 기제를 발전시킬 정도로' 힘든 일인 잠을 왜 그렇게 다들 자려고 하나? (잠의 보편성)을 따져본다면, 분명 잠이 앞에서 얘기한 활동하지 않음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글쓰이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번 문장삽입** 문장삽입 A type(가시적 근거) - (1) 남음 - 지문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만 On the other hand를 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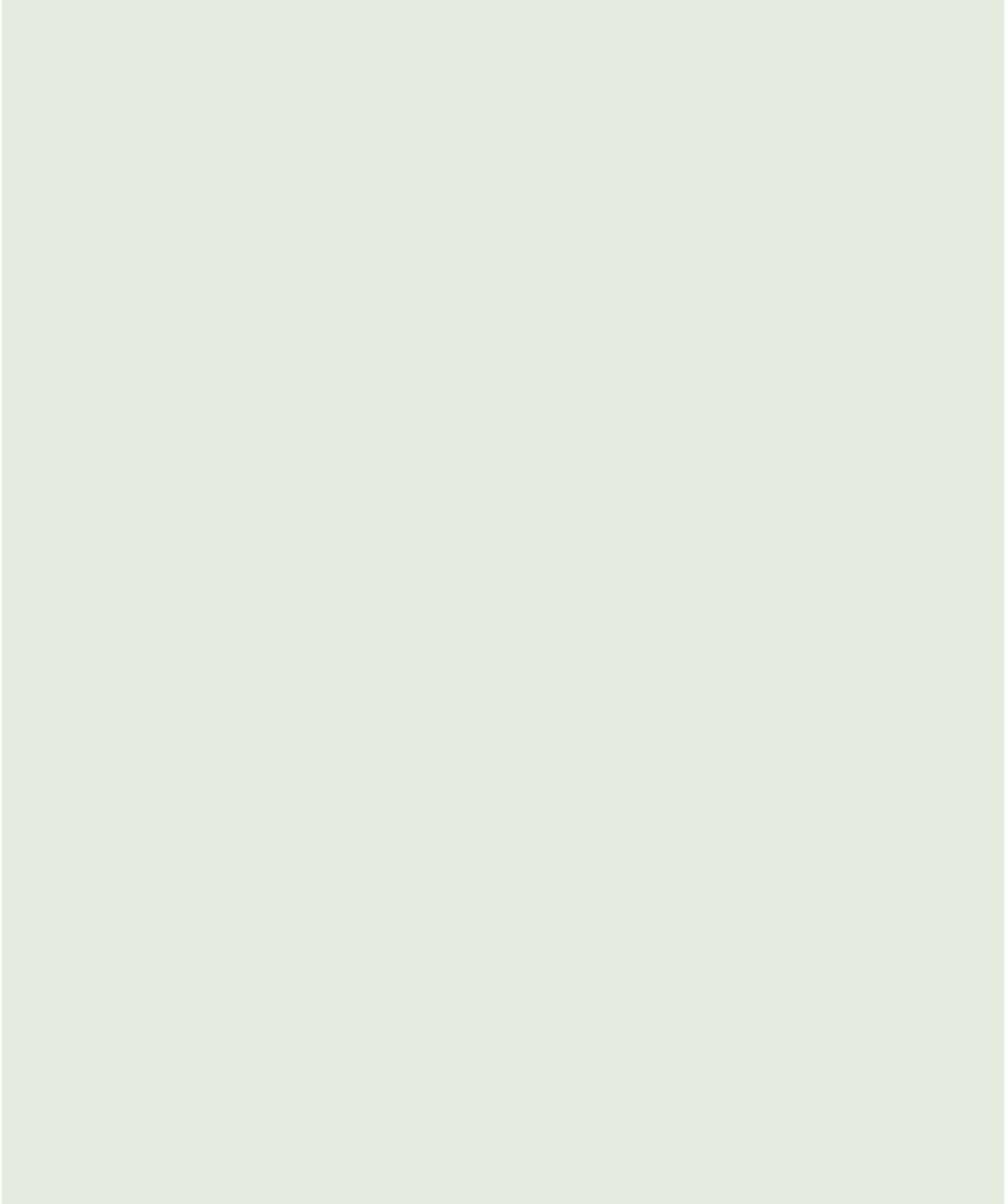
Comprehension ( ⑤ ) If sleep is universal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must be paid, the implication may be that it has important functions that cannot be obtained just by quiet, wakeful resting.

5번 문장에서 볼까요?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가 치러져야 할 때조차도 잠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갖는 함의는 조용한,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잠이 갖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재적인 대가'? this potential price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중에 잠의 댓가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이 부분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가'로 보더라도, '잠재적' (potential)이라는 말이 왜 붙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주어진 문장과 'this potential price'를 연결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라고 했는데, 잠의 하나의 측면이 바로 뭐냐면, 환경에 대한 반응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바로 this potential price입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위급상황이나 다른 동물들이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런 위험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potential' 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이 this potential price이라는 남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 시켜주기 때문이죠. 독해를 정말 꼼꼼히 해야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메모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던 중요한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합시다!



**29번 어법성판단** 어법 Point 정리**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Most historians of science point to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to regulate agricultural activity a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what we now call astronomy, the study of stars and planets. Early astronomy provided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and gave humans ①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Stonehenge,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southern Britain, ② is perhaps the best-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 point to the spots on the horizon ③ where the sun rises at the solstices and equinoxes — the dates we still use to mark the beginnings of the seasons. The stones may even have ④ been used to predict eclipses.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bears silent testimony both to the regularity of nature and to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and ⑤ discovers deeper meanings in events.

\* monument: 기념비 \*\* eclipse: (해 달의) 식(蝕) \*\*\* testimony: 증언

**해석**

대부분의 과학 역사가들은 별과 행성에 대한 연구, 즉 우리가 현재 천문학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동기로 농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달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초기 천문학은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인간에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그들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했다. 영국 남부에 있는 4,000년된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돌들인 스톤헨지는 아마도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에서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발견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비일 것이다. 스톤헨지의 커다란 표식은 우리가 계절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여전히 사용하는 날짜인 지점 (至點) 과 분점 (分點) 에서 태양이 뜨는 지평선의 장소를 가리킨다. 그 돌들은 심지어 (해·달의) 식(蝕)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글이 없던 시절 사람들이 세운 스톤헨지의 존재는 자연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모습의 이면을 보고 사건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말없이 증언해 준다.



**29번 어법성판단** 어법에 대한 사항은 어법 출제 포인트를 한번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Solution**

어법에 대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어법에 대한 사항을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기본적인 문법 용어만 아시고 계시면 제가 지금 연재중인 SISO 주간지 Season1 (무료 배포중에 있습니다) 어법 파트에 대해서만이라도 꼼꼼하게 다보시길 바랍니다. 기출분석과 동시에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시를 성실히 담아놨습니다. 전체 포인트 모듈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빈출되는 주제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으실 것입니다.

**Point!**

(1) Early astronomy provided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and gave humans ①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1. 소유격 대명사의 수일치 - [their / its]**

[해설] 저는 대명사의 수의 일치 이런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판단합니다. 가장 정답이었던 빈도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체크하려면 문맥을 살피는 등 정확히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선택지는 마지막으로 제치세요. 나머지가 도저히 아닌것같다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2) Stonehenge,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southern Britain, ② is perhaps the best-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2.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 [is / are]**

[해설] 가장 많이 빈출되고 반복되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나왔습니다. 동격어구 (, )가 나오면 어법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문장성분이 아니므로 제외시키고 구조를 보셔도 됩니다. (해석하실때 동격을 그냥 생략하면 큰일나는 경우도 많으니 읽으셔야 하지만, 지금은 어법 문제 풀이 이므로!) 주어는 Stonehenge 단수 주어이므로, is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3)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 point to the spots on the horizon ③ where the sun rises at the solstices and equinoxes — the dates we still use to mark the beginnings of the seasons.

**3.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 [where / which]**

[해설] 내신에서부터 많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인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뒷 문장 구조가 완전하면 관계부사,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가 오는데, 여기서서는 the sun rises (1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The stones may even have ④ been used to predict eclipses.

**4. be used to**

[해설] 사용되어지다라고 해석되면 be used to~가, ~에 익숙하다라고 해석되면 be used to ~ing가 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냥 예전부터 많이 나오던 클리셰입니다.

**29번 어법성판단** 어법에 대한 사항은 어법 출제 포인트를 한번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Point!**

(5)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bears silent testimony both to the regularity of nature and to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and ⑤ discovers deeper meanings in events.

**5. 병렬구조 - [discovers / (to) discover]**

[해설] 어법 포인트를 파악할 때, 병렬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지 앞에 and or but과 같은 등위 접속사가 오면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것은, 이때 밑줄 친 부분 포인트 그자체보다도 이 부분이 문장에서 '어디에 걸리는가' 즉, 어디에 반복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discovers라고 썼다라는 말은, 저기 앞에 있는 동사 부분인 bears에 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를 정리해보자면,

**(1) discovers로 쓰였을 경우**

The existence of Stonehenge discovers deeper meanings in events. 가 됩니다. 근데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 스톤헨지의 '존재'가 사건의 깊은의미를 어떻게 발견하나요?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게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여야하는가? 문장을 봅시다.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bears silent testimony both to the regularity of nature and to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and ⑤ discovers deeper meanings in events.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the ability of the human mind를 수식하는 to부정사 자리에 쓰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눈 앞에 있는 물체의 모습의 이면을 보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인간 마음의 능력! 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to see와 연결되어 discover (병렬일 때 2번째 to부정사에서 to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고로 5번!

**메모**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위 해설지는 오르비 시그니처 (Signature)의 자료이며,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학원 등에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걸 금합니다. 허락 받으시더라도 돈 받을 생각도 없는데, 어느학원에서 누가 사용하시는지 정도는 말씀 주시고 허락받으시도 쓰시면 선생님도 멋멋하시고, 저도 기분좋고 좋지 않을까요?

